1997년도「전자산업대상」시상

전자산업대상 : 중앙전자공업(주) 변봉덕 사장
협동상 : (주)SKC 장용군 사장
공로상 : 성남전자공업(주) 홍원표 회장

본회(회장 : 구자학)는 지난해 전자산업을 결산하면서 올해의 전자산업 대상에 중앙전자공업(주) 변봉덕, 협동상에 (주)SKC 장용균, 공로감사패에 성남전자공업(주) 홍원표, 그리고 우수상 삼성전자(주) 홍성표 등 모두 76명을 뽑아 2월 2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97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전자산업 대상은 진흥회가 1993년부터 매년 전자산업을 결산하면서 그해에 전자산업 발전에 공이 가장 컸던 업체와 인사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전자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 전자산업인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행해 온 제도로서 올해는 지난 2개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심의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올해 영예의 대상업체로 선정된 중앙전자공업(주) (대표이사 : 변봉덕)는 1968년에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인터폰 및 인터컴을 개발, 수출하고 1973년에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UL 규격을 획득하는 등 부단한 품질혁신 운동을 통해 그동안 ISO 9002, 유럽의 CE마크 등 170여건의 외국 유명 규격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76개 부문의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48개부문의 개발이 진행중에 있는바 그 중 V-PBX 화상회의 시스템은 작년 하반기에 120만불, 올해 800만불의 수출 주문을 받아 인터폰 및 인터컴 전문업체에서 정보통신업체로 변신중에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중소 전문기업으로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맥스(COMMAX)라는 자기상표로(자기상표율 : 90%) 폐루, 브라질 등 6개국의 시장을 새로 개척함으로써 해외시장을 100개국으로 다변화 시켜 그 전년에 비해 수출 46.9% 신장, 순이익 3.4배 증가 등 성장성과 수익성 면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협동상 수상자로 선정된 장용균씨(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회장, (주)SKC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의 자기미디어산업이 경쟁력 약화에다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지난 93년부터 수출정체에 수익성 저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난 1년 동안 20여차에 걸친 각종 회의를 통해 업계간에 원활한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한 결과 96년에 수출을 9.8% 신장시켜 우리나라 자기미디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40.5.%로 제고시켜 세계 제1위의 생산국으로 그위상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별 공로자로 선정된 홍원표씨(성남전자공업(주) 회장, 삼영전자공업(주) 고문)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산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전자업계를 이끌어온 원로 전자산업인으로써 창업주와 함께 삼영전자공업(주)를 국내 최우량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특히 1976년 진흥회 창립 주역으로서 오늘의 진흥회가 있기까지 모든 제도정비와 기반구축에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통해 전자산업이 수출 선도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공헌한 바 있다.

또 이날 분야별 우수상은 기술개발 부문에 삼성전자(주)의 홍성표씨 등 4명, 기능향상 부문에 두원전자(주) 임점례씨등 6명, 수출증대 부문에 (주)삼보컴퓨터 장동춘씨 등 3명,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부문에 대우전자(주) 강이정씨 등 10명이 그리고 LG전자(주) 선임연구원 김재만씨 등 50명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으로부터 특별표창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

본상	대 상	중앙전자공업(주) 대표 변봉덕
	협 동 상	자기미디어협의회회장(주)SKC 대표이사 장용균
부문상	수출부문 우수상(3명)	(주)삼보컴퓨터 과장 장동춘 / 대덕전자(주) 이사 이기호 / (주)세아정보통신 이사 백승운
	기술부문 우수상(4명)	삼성전자(주) 부장 홍성표 / (주)한미정밀전자 이사 박용진 / LG전자(주) 책임연구원 조용왕 / 필코전자(주) 차장 김인래
	기능부문 우수상(6명)	두원전자(주) 사원 임점례 / (주)롯데캐논 과장 임주혁 / 대우전자(주) 과장 임채경 / (주)남성텔레콤 차장 한웅섭 / LG반도체(주) 반장 지인식 / 대아리드선(주) 계장 조용희
	근로부문 우수상(10명)	대우전자(주) 기능 이영희 / 한국전장(주) 주임 김미현 / LG정보통신(주) 사원 강이정 / 골든콘넥터 산업(주) 사원 이연화 / 현대전자산업(주) 기사 허봉기 / 한국통신(주) 과장 남재현 / (주)삼보컴퓨터 반장 박영희 / (주)석천 직장 김준태 / 대덕산업(주) 반장 황재수 / 동형전선(주) 계장 김병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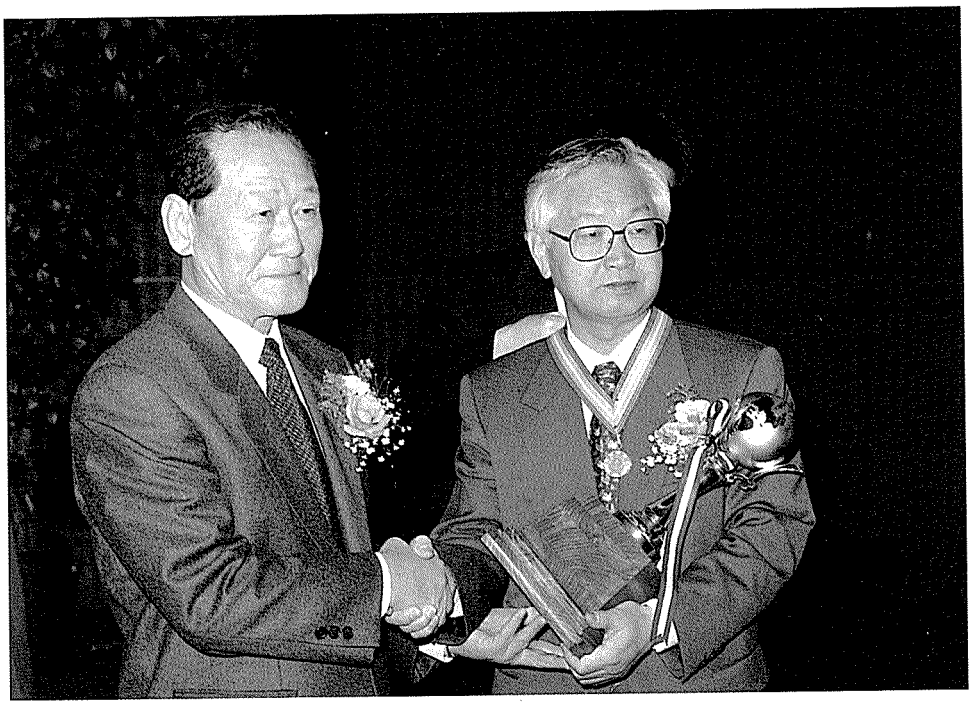
표창			
	LG전자(주) 선임연구원 김재만	대덕전자(주) 과장 이남철	한국전장(주) 주임 유종현
	(주)삼보컴퓨터 대리 김정철	골든콘넥터산업(주) 전무이사 김태순	히로세코리아(주) 반장 이승철
	동형전선(주) 계장 라영문	한국통신(주) 과장 이동수	한국전장(주) 과장 한상운
	대우전자(주) 사원 유진우	한국전자부품공업(주) 대리 박훈	합동전자통신(주) 기술상무 변영환
	LG정보통신(주) 과장 송인호	삼원전자(주) 책임연구원 정지원	LG전자(주) 과장 김규태
	필코전자(주) 차장 김용갑	LG반도체(주) 과장 박희원	(주)롯데캐논 계장 우영근
	기린전자(주) 대리 강병봉	히로세코리아(주) 계장 김성래	대덕전자(주) 계장 심상구
	대덕산업(주) 계장 권용덕	삼성전자(주) 과장 하대연	필코전자(주) 대리 박상돈
	삼원전자(주) 부장 박남식	(주)삼보컴퓨터 대리 천병선	(주)남성텔레콤 차장 이용문
	(주)남성 차장 오효중	LG정보통신(주) 사원 강성걸	중앙전자공업(주) 책임연구원 김왕배
	한국전장(주) 주임 왕춘석	현대전자산업(주) 4급 이성우	두원전자(주) 사원 한영숙
	현대전자산업(주) 부장 박승욱	필코전자(주) 주임 전동기	LG반도체(주) 사원 안호준
	LG반도체(주) 책임연구원 전홍섭	대덕전자(주) 계장 김길수	히로세코리아(주) 사원 기근도
	(주)롯데캐논 과장 채수호	(주)남성 차장 정창현	대아리드선(주) 사원 고석철
	대우전자(주) 대리 장해룡	LG전자(주) 과장 서호경	삼성전기(주) 부장 최대성
	대덕산업(주) 계장 이성규	기린전자(주) 차장 봉명구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대리 임호기
	(주)남성 차장 서달용	동형전선(주) 계장 정락인	

공로패	성남전자공업(주) 회장 홍원표

전자산업대상

변 봉 덕

중앙전자공업(주)대표이사



전자통신기기 전문업체인 **중앙전자공업(주) 변봉덕 대표이사**가 지난 2월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본회의 제21회 정기총회에서 영예의 전자산업 대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영예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중앙전자공업(주)는 1968년에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인터폰 및 인터컴을 개발, 수출하고 1973년에는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UL규격을 획득하는 등, 정보통신기기인 Viedo phone, HA System, CCTV Sysetm 방송기기, 교환기기, 자동경보 및 병원관리 System 등 300여 모델를 개발·생산하여 73건의 외국규격(UL. FCC 등)을 획득, 총 170건의 외국규격승인을 받는 등 1997년에는 약 850만불의 주문을 확보한 상태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404억원, 수출 1,573만불으로 자사 브랜드(COMMAX) 수출비중이 90%를 차지하는 등 해외신시장 개척과 품질향상에 주력하는 탁월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변봉덕 대표이사의 전자산업대상수상소감과 앞으로 경영전략 등을 들어본다.

Q 본회의 21회 정기총회에서 전자산업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A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무엇보다도 국내 모든 전자인의 가장 큰 모임인 전자진흥회의 전자산업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해온 진흥회 및 임직원 모두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Q '97 사업전략과 향후 사업전망?

A 향후 국내 및 세계경제를 주도할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더욱 집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97년도는 중견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Q 중앙전자산업의 중점개발 분야?

A 96년도 폐사의 중점개발분야는 CCTV와 P·A시스템이었고 이미 개발 완료하여 시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 개발분야는 화상회의 시스템이외에도 화상과 연결된 VPABX, FPLMTS 단말기 등 첨단정보통신 사업분야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Q 현시점의 애로사항 및 건의하고 싶은 사항?

A 애로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 고급기술인력의 수급이 부족하다는 것과, 전산화된 물류시스템 구축이 아직 구비되지 않아서 물류비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있겠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높은 대출금리같은 자금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상표등록 및 이의 유지에 따른 제반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Q 경영철학?

A 첫번째로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이며, 이에 따른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서 계속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제공하며 발생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누구나 신뢰하는 회사, 누구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째로 인력개발, 인재양성 등에 경영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보며 마지막으로 "나"라는 욕구충족과 폐쇄적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생활철학 및 건강관리 및 취미활동?

A 굳이 생활철학을 들자면 매사에 성실하고 근면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관리로는 언제나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취미활동으로는 등산 등 가벼운 운동을 좋아하고 틈나는 대로 독서를 즐깁니다.

Q 앞으로의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

A 향후 미래의 경영환경은 각종 시장개방의 가속화, 중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강력한 도전으로 인한 가격경쟁의 약화 등 그리 밝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진정한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대처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경영환경은 그리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및 경영지도를 뒤흔들 원동력은 정보통신분야에서 나올 것이며 이러한 경영 및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전자산업대상(협동상)

장 용 균

(주)SKC대표이사

(주)SKC장용균대표이사의 한국전자산업진흥회내의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자기테이프에 대한 수출신장과 동종업체간의 과대경쟁 방지등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기테이프 주종업체로서 선진기업과의 수출경쟁력에 있어 뒤지지 않도록 국내업체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힘쓰고 있으며 본회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매년 4회에 걸쳐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 사장단의 유대관계를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고, 매월 정기모임 및 수시로 개최되는 임원 및 수출부서장간의 실무회의가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는 등 본회 협의회 정신인 동종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정보교환과 유대강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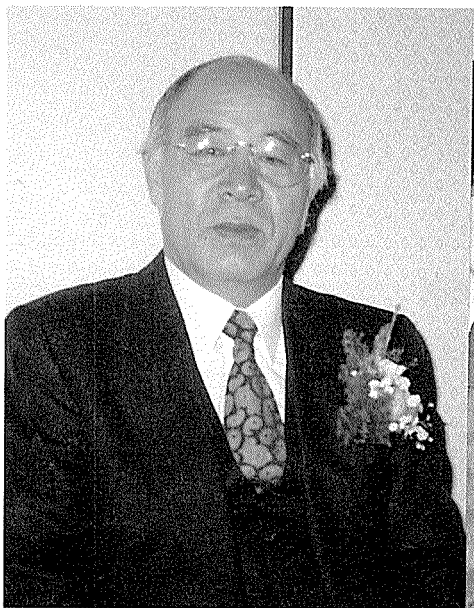
장용균사장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인재육성에는 효율적인 교육훈련과 함께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 자신의 일에 재미와 보람을 갖고 노력하면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좋은 결과도 얻게된다고 하는 생활철학을 갖고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국제 경쟁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으므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경영 여건은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나서 내 몫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전자산업대상(공로상)

홍 원 표

성남전자공업(주)회장



성남전자공업(주) 홍원표회장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각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협동심을 발휘하여 인화 단결에 크게 기여 하였다.

홍 회장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설립('76. 4.20)시부터 본회 임원사로서 계속 협력해오고 있는 삼영전자공업(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사회 및 정기총회, 임원간담회 등 각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사업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회원상호간의 유대 강화 등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협동정신을 고취시켜 줌으로서 한국전자산업진흥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

홍회장은 기업은 영속성을 전제로, 업적 달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굴하지 않는 도전 의식으로 경영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전천후 체질로 키워 건강한 우량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으로 후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는 기반 조성도 물론 기업의 책임이라는 경영철학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자산업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 및 전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주요 수출 전략산업으로 특화 계수가 높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온 전자산업이 이제 퇴조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전자산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업이 끌고 정부와 국민이 밀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밑거름으로 다시 수출 지상주의를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용기술을 개발하는 Frontier mind를 발휘, 거시적 안목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대응요법으로 선진국의 일류기업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핵심역량(Core Comperence)을 확보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선진 수출입국을 목표로하여 다시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